

해외통신원

※ 해당 글에는 특정 종교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자유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이두형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 사회학 석사과정

들어가며

지난 해부터 프랑스 사회에는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번 들끓기 시작했다. 이는 무엇보다 2015년 1월 7일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총기 테러’에 대한 재판이 2020년 9월 2일 시작되면서 해당 사건을 둘러싼 논쟁들이 재생산되고 또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샤를리 에브도>는 재판이 시작되는 당일, 문제의 풍자화를 재차 실은 특별판을 발간했다.

[그림 1] <샤를리 에브도> 2020년 9월 2일자 특별판 표지. “이 모든 게 이것 때문에(tout ça, pour ça)”라고 적혀 있다.



다만 어디까지가 ‘언론의 자유’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의 부재는 비극적인 사건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재판이 시작되고 난 후 2020년 9월 25일 샤를리 에브도의 옛 사무실 인근에서 2명의 피혁이 흉기를 휘둘러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샤를리 에브도에 가해진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사무실을 둔 다큐멘터리 전문 독립 제작사 프라미에흐 리뉴 소속 저널리스트 두 명이 공격을 당했다 (Vincendon, 2020). 그 외에도 언론사 또는 언론인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2020년 10월 16일 발생한 ‘샤무엘 파티 참수 사건’ 또한 토론 수업 중 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 풍자 캐리커처를 보여 줬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범행동기였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며 해당 사건을 둘러싼 법적 정의는 걸음을 떼기 시작했지만 ‘샤를리 에브도’로 대변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프랑스 사회 내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며 여전히 상당한 진통을 겪는 중이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재판이 프랑스 사회 내의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한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사회적 담론들이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국한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포괄하는 더 광범위한 논쟁으로 뻗어나간 데에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9월 23일 프랑스 내 약 100여 언론 매체들이 ‘함께, 자유를 지킵시다(Ensemble, défendons la Liberté)’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공개서한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들은 “우리가 이 공개서한을 쓰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관해 여러분께 환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대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언론매체는 국제 테러

리스트 단체들의 공개적인 타깃이 되었고, 정부는 비판적인 보도를 한 프랑스 저널리스트들이 '문제(coupable)'라며 억압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프랑스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는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폭력뿐 아니라 정부의 언론을 향한 태도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들이 얽힌 더 포괄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들어 프랑스 언론계를 둘러싸고 어떤 논쟁들이 벌어지는지, 특히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어떤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는 한국 내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그림 2] <리베라시옹(Libération)> 2020년 9월 23일자 지면에 실린 100여개의 프랑스 언론매체들의 공동성명¹⁾



1. 신성모독의 자유

“법은 명확하다. 우리는 종교를 풍자하고 비판할 권리, 신성모독의 권리를 갖고 있다(La loi est claire. Nous avons droit au blasphème, à critiquer, à caricaturer les religions).”

2020년 2월 12일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동부 내륙의 지역 언론 그룹인 에브라 소속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에 대한 풍자 뿐 아니라 '신성모독'의 권리(Droit au

1) <리베라시옹(Libération)> (2020. 9. 23), URL : https://www.liberation.fr/debats/2020/09/22/ensemble-defendons-la-liberte_1800215/

blasphème) 또한 모두가 지닌 권리라고 강조했다. 물론 그는 “중요심을 일으키고, 존엄성을 공격하는 것은 지된다”고 덧붙였지만(Le Monde, 2020),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성모독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이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후 2020년 9월 1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제3공화국이 시작되면서 프랑스는 양심의 자유(liberté de conscience)와 연결된 신성모독의 자유(liberté de blasphemer)를 지녔다. 프랑스에서는 누구나 통치자와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고, 신성모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Le Figaro, 2020).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 논쟁이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즉 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에서 비롯된 만큼 '신성모독의 자유'가 전면에서 등장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신성모독의 자유는 마크롱 대통령이 강조하듯 프랑스 공화국 정신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떠받치는 중요한 가치로서 전면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신성모독의 개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유럽 사회에서 신성모독(blaspheme)의 개념은 상당히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역사학자 르블루-레이세이라에 따르면 13세기부터 교회법은 신성모독에 대한 명확한 법적분류와 동시에 그에 따른 형법을 마련했다. 이어 신성모독은 단순히 종교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종교혁명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신성모독을 '이단'으로 범주화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럽 내에서, 최소한 프랑스 내에서 신성모독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으며, 사회적 맥락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왔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역사와 좀 더 밀접하게 바라봤을 때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이하 인권선언)에서 종교적 견해(opinion religieuse)를 여타의 다른 의견들, 정치적 견해나 철학적 견해 등과 같은 위치에서 다루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시 말해, 종교적 견해는 그 자체로 여타의 다른 관점들보다 더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역사를 살펴봤을 때 종교 또한 엄연한 사회적 사실일 뿐 아니라 정치적 지배와 시민들에게해지는 도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잡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프랑스와 같은 정교분리(laique) 사회에서는 신앙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지만 비신앙자의 비판적 시각도 분명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igot, 2015).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제기되는 신성모독의 자유를 둘러싼 프랑스 내 논쟁에서 가장 큰 맹점 중 하나는 개념의 모호성이다. 이는 2016년 1월 20일 프랑스 상원에서 신성모독 제한과 관련해 발간한 '비교법제연구(Étude de législation compare)'에서 잘 드러난다. 이 보고서는 신성모독의 정의에 대해 “지정학적 요인과 시대, 종교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다”고 먼저 밝힌 뒤, “발언과 글 등 어떤 형태의 표현 방식으로 구현되며 종교적 믿음, 종교적 상징 또는 신성(神聖)에 가해지는 침해”로 정의한다. 문제는 이에 포함된 용어들 자체도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그림 3] (TMC방송) 2020년 2월 3일자 '퀴티디앙(Quotidien)'에 출연한 밀라(Mila) 출처: TMC방송 화면 캡처/Libération



이처럼 '신성모독'의 개념 정의 또는 경계 자체가 자의적임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갈등뿐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들을 야기하고 있다. 한 예로 '밀라 사건(Affaire Mila)'이 있다. 지난 2020년 1월 18일 당시 16세였던 밀라는 일부 인스타그램 팔로워들과 라이브를 진행했다. 그때 동성애자인 그의 취향과 성적지향을 두고 특정 몇몇이 “알라의 이름으로라며 ‘더러운 레즈비언’, ‘더러운 인종차별 주의자’, ‘더러운 창녀’ 등 욕설을 수없이 내뱉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라이브가 끝난 뒤에도 네티트명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개인당 30개에서 100개 정도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그런 맥락에서 밀라는 “코란 안에는 증오만이 있다. 이슬람, 그건 빌어먹을 것이다(le Coran, il n'y a que de la haine là-dedans, l'islam, c'est de la merde).”라며 “우리는 한 종교를 향해 인종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저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다.” 등의 말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고 무수한 살해협박의 메시지도 쏟아졌다. 한편에서는 #나는밀라다(#JesuisMila)라며 옹호하는 편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나는밀라가아니다(#JeNeSuisPasMila)라는 해시태그 물결이 이어졌다.

이는 프랑스 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압달라 제크리 프랑스 이슬람 위원회(Conseil français du culte musulman) 총재는 밀라에게 가해진 살해위협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그에 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녀가 종교들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녀가 말한 것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트위터에 “마크롱 정부가 우리의 자유와 가치를 지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나? 확실히, 대답은 ‘아니오’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다.”라며 정부의 태도에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프 카스타너 당시 내무부 장관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표현의 자유는 우리

나라에서 누구나 종교를 비판할 수 있게 한다”며 “어떤 이들이 그들 스스로를 대표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그것(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허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Champenois & Moran, 2020). 서두의 마크롱 대통령의 신성모독의 권리 옹호 역시 밀라 사건을 둘러싼 맥락에서 제기됐다.

한편에서 신성모독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언론의 자유와는 다른 차원의 쟁점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날 이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재판이라는 사회적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성모독의 권리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마크롱 대통령이 강조하는 프랑스 공화국 정신에서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매체의 공동 성명 역시 신성모독의 자유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들은 “그들의 피로 자유의 대가를 지불한 샤를리 에브도와 함께하면서 프랑스에는 신성모독의 죄가 없다는 것을 상기합시다”라며 “우리가 신성모독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것은 신성모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입니다”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드러나듯 오늘날 신성모독의 자유는, 포괄적인 자유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대표하는 가치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2. 언론인을 향한 공격들

앞서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재판이 프랑스 안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촉발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불거졌던 물리적 공격이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프랑스의 언론신뢰도는 23%로 조사 대상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았다(Reuters Institute, 2020)²⁾. 2019년 보고서에서는 24%를 기록했으며, 이 역시 유럽 국가들 내에서는 최저치다(Reuters Institute, 2019).

문제는 이러한 기존 언론계에 대한 불신을 넘어선 실제적인 위협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해 세금개혁부터 중·하층 생활 안정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노랑조끼(Gilet jaune)' 시위를 비롯해 일부 과격 집회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가시적인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실제 지난 2018년 10월 25일 파리 상젤리제 거리에서 열린 '노랑조끼' 집회 취재에서 BFM TV 소속 기자 바텔레미 볼로는 공사로 인해 아스팔트 포장

2) 조사대상 유럽국가: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터키, 불가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벗겨진 도로를 보고 일부 과격 시위대의 폭력적 행위로 인한 결과처럼 묘사하면서 오보를 냈다. 이에 대해 그는 명백한 자신의 실수라며 오보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심각한 비난과 살해위협까지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주변 지인들 역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Godet, 2018).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기자에게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외에도 집회 중 일부 과격 시위대에 의한 언론인 공격은 심심찮게 보도되었다. 같은 해 12월 17일 프랑스 방센느(Vincennes) 지역에서는 지역 매체 프랑스 3 일 드 프랑스(France 3 ile-de-France) 소속 기자 마리옹이 당구대로 관자놀이를 가격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1월 18일 모셀르의 생 아볼(Saint-Avold)에서 시위대를 인터뷰하던 헤퍼블랑 로행(Républicain Lorrain) 소속 저널리스트가 일부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주먹질과 발길질 공격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Franceinfo, 2019). 또 지난 2019년 4월 13일 프랑스 중부 앙드르르(Indre) 주 샤토후(Châteauroux)에서 열린 경찰의 집회·시위 통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일명 '반파괴자법(Anti-casseur)' 반대집회에서 취재하던 이 지역 언론매체 Bip 테베(Bip TV) 소속 기자 리즈 니콜은 당시 한 집회 참석자가 가까이 다가와 촬영에 반감과 함께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을 가했다고 증언했다(Rabelle, 2019).

집회 내에 언론인을 향한 공격은 일부 과격 시위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8년 12월 8일 파리에서 르파리지앵 소속 사진기자 두 명은 경찰이 발포한 고무총에 맞았으며, 그 중 한 명은 목덜미를 가격 당해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같은 날 르 주날 듀 드망슈(Le Journal du dimanche)의 기자 또한 언론인을 의미하는 완장을 차고 있었지만 경찰 곤봉에 의해 손 골절상을 입었다(Franceinfo, 2019).

[그림 4] 2020년 11월 23일, 파리 헤퍼블릭 광장에서 진행된 난민 텐트촌 강제철거 현장에서 브뤼(Brut)의 기자 레미 뷔진(Rémy Buisine)이 경찰에 의해 제압되고 있다. 출처: 트위터 영상 캡처/르누벨옵세르바터(Le Nouvel Observateur)



이같은 공권력의 언론인을 향한 폭력행위는 '노랑조끼' 집회 때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0년 11월 23일 파리 헤퍼블릭 광장 난민 텐트촌에 대한 공권력의 강제 철거 취재에 나선 브뤼의 기자 레미 뷔진은 경찰에 의해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Lefigaro, 2020). 이어 같은 해 11월 29일 파리에서 진행된 일명 '포괄적 보안법(loi Sécurité globale)'³⁾ 반대 집회에서 독립 사진기자 아메르 알-알비는 언론인이라고 밝혔음에도 경찰에 의해 곤봉으로 얼굴을 수차례 맞았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출혈의 부상을 입었다고 폭로했다(Le Parisien, 2020).

언론인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집회나 시위처럼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장에선 언론인 또는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프랑스 언론매체의 공동성명에서 "(언론인을 향한) 언어공격이 조금씩 물리적 형태가 되고 있다"고 밝히듯,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개인의 신체·심리 문제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 또는 언론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3.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격

언론인을 향한 공격은 집회 같은 긴장감이 고조되어 물리적 충돌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앞서 BFM TV 소속 기자 바텔레미 볼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인터넷 공간에서도 언론인을 향한 비판을 넘은 인신모욕과 심지어 살해위협과 성추행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르떼(Arte) 소속 저널리스트 나디아 담을 향한 온라인 성추행이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언론 매체 유럽 1(Europe 1)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프랑스의 비디오게임 전문 사이트 쥘비테오닷컴의 자유게시판인 블라블라 18-25 양(Blabla 18-25 ans) 이용자들을 "배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이라며 비판했다. 블라블라 18-25 양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자유게시판이다(Abalon, 2017). 나디아 담이 이 게시판 이용자를 비판한 이유는 특정 두 명의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혐오 선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클라라 곤잘레스와 엘리엇 르페는 해당 게시판에서 불거진 성희롱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문자로 피해 사실을 알리며 성희롱 근절을 목표로 한 안티-홀루(anti-relous)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디아 담의 비판 이후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일부 유저들의 성추행 발언은 물론 성폭행

3) 이 법의 일부 조항 자체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제24조항이다. 이 기준 해석을 두고 자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Libération, 2020).

협박과 살해 위협까지 이어졌다. 그들 중에는 그녀의 개인 주소를 언급하며 성폭행과 살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S.T, 2017). 특히 두 명의 극성 가해자는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도 알아내 지속적으로 성추행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소송 끝에 두 명의 가해자는 5개월 금고형과 2,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졌다(Makdeche & Prudent, 2018).

비슷한 사례로 문화 주간지 르쁘띠 불레탱(Le Petit Bulletin)의 저널리스트 줄리 에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리옹에 거주하는 그는 지난 2017년 9월 12일 리옹에 새로 문을 연 카테일 바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를 보면 그곳의 주인들은 기자에게 식민시대를 친절하고(sympathique) 호의적인(accueillant) 시대로 묘사했다. 이에 기자가 노예제를 언급하며 반감을 표하자, 그들은 “화장실에 그 사진들 몇 개를 걸어놨다”고 말했으며 줄리 에노는 이 같은 당시 상황과 그때 느낀 불쾌감을 기사에 그대로 담았다(Hainaut, 2017).

이 기사는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켰다. 하나는 카테일 바를 향한 분노였고, 또 다른 하나는 기사를 향한 공격이었다. 해당 기사는 네오나치 사이트인 ‘참여 민주주의(Démocratie participative)’의 표적이 되었다. 해당 사이트는 극우 성향 사이트로 유대인, 흑인, 동성애자,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혐오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냈으며 백인 남성의 우월성을 주창했다. 이 사이트에는 줄리 에노에 대해 ‘흑인 페미니스트 창녀’ 그리고 ‘흑인을 좋아하는 계집(femelle négrophile)’ 등과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 또한 이외에도 극단적인 폭력성을 띤 수 백개의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에게 전해졌다. 또한 그는 기사가 나고 나서 10월 초 두 차례에 걸쳐 한 남성이 본인은

쫓아온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2018년 11월 27일 파리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명령했다(Untersinger, 2018).

조금 더 최근 사례로는 피가로 매거진의 기자 주디스 웬트로의 ‘9.11’ 트윗 논란이 있다. 해당 기사는 2020년 9월 11일 BFM TV에서 올린 영상을 리트윗하며 ‘9월 11일(11 septembre)’이라는 멘션을 남겼다. 해당 영상에서는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이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주디스 웬트로가 마치 ‘9. 11 테러’를 연상시키는 트윗을 올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그는 이 영상이 히잡 착용의 효용성을 홍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같은 트윗을 올렸다고 밝혔다(Guyonnet, 2020).

이를 두고 정치계도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진하는 공화국당의 피오나 라자르나 유럽 생태녹색당의 세르지오 코로나도 등은 해당 트윗이 인종차별적이며 이슬라모포비아를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랄드 다르마넵 프랑스 내무부 장관 등은 이에 지지 선언을 했다. 이같은 지지에는 단순히 이슬람극단주의에 대한 비판에 동조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디스 웬트로의 트윗 이후, 그를 향한 살해위협이 지속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이다(Guyonnet, 2020). 실제 제랄드 다르마넵 장관은 “그가 받은 살해위협에 대해 강경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례들은 언론인들이 거리 집회와 같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공격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가시적인 피해는 없을 지라도 지속적이고 꾸준히 이어지는 모욕과 공격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유발한다고 당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증언한다. 실제 줄리 에노는 해당 기사가 나가고 약 일주일 후인 9월 20일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 당시 상황과 관련해 글을 실었다. 그에 따르면 “나에 대한 모욕과 협박이 넘쳐났다”며 “숨쉬기가 어렵고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스스로 ‘그런 말 하지마. 그러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라고 했지만, 어쨌든 나는 두렵다.”며 심정을 드러냈다.

나가며

단순히 시간으로만 따져봤을 때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1881년 제정된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이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1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또한 그 기반에는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혁명 당시 선포된 ‘인권 선언’이 있다(박진우, 2007). 이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장장 220년 가까운 시간이다. 이처럼 긴 시간이 지났어도 프랑스 내에서 언론의 자유는 아직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고 또 어떤 비극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물론 역사의 흐름에 따라 시대와 사회 역시 변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가치 역시 끊임없이 새로 정제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 언론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림 5] <피가로 매거진(Figaro Magazine)>의 기자 주디스 웬트로(Judith Weintraub)의 2020년 9월 11일자 트윗



있는지, 또 어떤 난관에 부딪혔는지 직면하는 것이다. 물론 프랑스의 사례가 한국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를 가볍게 여길 순 없다. 또한 프랑스 내 논쟁들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이는 결코 단번에 매듭지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즉, 프랑스 사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되물어 보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

참고 문헌

- 1) 박진우 (2007). 프랑스의 언론법제 :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언론중재>, 2007년 겨울호. pp52-64.
- 2) Absaion, J. (2017.6.11). Qu'est-ce que le forum "Blabla 18-25 ans" de jeuxvideo.com ?. RTL. URL : <https://www.rtl.fr/actu/debats-societe/qu-est-ce-que-le-forum-blabla-18-25-ans-de-jeuxvideo-com-7790820155>
- 3) Bigot, C. (2015). Blasphème, respect des croyance et liberté d'expression : l'impasse de l'article 1382 du code civil. Legicom, N° 55, pp. 59-63.
- 4) Champenois, S & Moran, A. (2020.2.7). Affaire Mila : d'instagram au Sénat, itinéraire d'une polémique. Libération. URL : https://www.liberation.fr/france/2020/02/07/d-instagram-au-senat-itineraire-d-une-polemique_1777706/
- 5) Godet, R. (2018.11.29). "J'ai eu beau reconnaître mon erreur, on continue de s'acharner" : un journaliste de BFM TV dénonce les menaces de certains "gilets jaunes". Franceinfo. URL : https://www.francetvinfo.fr/economie/transports/gilets-jaunes/j-ai-eu-beau-reconnaitre-mon-erreur-on-continue-de-s-acharner-un-journaliste-de-bfmtv-denonce-les-menaces-de-certains-gilets-jaunes_3077563.html
- 6) Guyonnet, P. (2020.9.13). Judith Waintraub du Figaro menacée après un tweet polémique. Huffpost. URL : https://www.huffingtonpost.fr/entry/judith-waintraub-figaro-tweet-11-septembre_fr_5f5df7f9c5b62874bc1e3416
- 7) Hainaut, J. (2017.9.12). La Première Plantation, ou l'art de se planter. Le Petit Bulletin, URL : <http://www.petit-bulletin.fr/lyon/guide-urbain-article-58700-La+Premiere+Plantation++ou+l+art+de+se+planter.html>
- 8) Initiative parlementaire et des délégations. (2016. 1.20). Législation comparée : La répression du blasphème, Sénat.
- 9) Le Figaro. (2020.1.9). Charlie Hebdo: Macron défend « la liberté de blasphémer » en France. Le Figaro. URL : <https://www.lefigaro.fr/flash-eco/charlie-hebdo-macron-defend-la-liberte-de-blasphemer-en-france-20200901>
- 10) Le Figaro. (2020.11.24). Journaliste « molesté » par un policier à Paris : une enquête ouverte pour « violences ». Le Figaro. URL : <https://www.lefigaro.fr/flash-actu/journaliste-molesté-par-un-policier-a-paris-une-enquete-ouverte-pour-violences-20201124>
- 11) Le Parisien. (2020.11.30). Photographe syrien blessé à Paris : une enquête confiée à l'IGPN. Le Parisien. URL : <https://www.leparisien.fr/faits-divers/photographe-syrien-blesse-a-paris-une-enquete-confiee-a-l-igpn-30-11-2020-8411501.php>
- 12) Leveux-Teixeira, C. (2011). Entre droit et religion : le blasphème, du péché de la langue au crime sans victime. Revue de l'histoire des religions, pp. 587-602.
- 13) Libération. (2020.11.21). Les journalistes dans la rue pour demander le retrait de la loi sécurité globale. Libération. URL : https://www.liberation.fr/france/2020/11/21/les-journalistes-dans-la-rue-pour-demander-le-retrait-de-la-loi-securite-globale_1806329/
- 14) Makdeche, K & Prudent, R. (2018.7.3). Deux membres du forum "18-25" de jeuxvideo.com condamnés à 6 mois de prison avec sursis pour avoir harcelé la journaliste Nadia Daam. Franceinfo. URL : https://www.francetvinfo.fr/societe/harcelement-sexuel/direct-harcelement-en-ligne-suivez-le-proces-des-internautes-qui-s-en-sont-pris-a-la-journaliste-nadia-daam_2831915.html
- 15) Rabelle, E. (2019.4.13). TEMOIGNAGE. Une journaliste menacée de mort à Châteauroux. France bleu. URL : <https://www.francebleu.fr/infos/faits-divers-justice/temoignage-une-journaliste-menacee-de-mort-a-chateauroux-1555183307>
- 16) Reuters institute & University of Oxford, (2020), 2020 Digital News Report. Reuters institute
- 17) Reuters institute & University of Oxford, (2019), 2019 Digital News Report. Reuters institute
- 18) S.T. (2017.9.6). La journaliste Nadia Daam harcelée sur le Web : Jeuxvideo.com cible des critiques. Le Parisien. URL : <https://www.leparisien.fr/culture-loisirs/harcelement-de-nadia-daam-jeuxvideo-com-cible-par-les-critiques-05-11-2017-7374570.php>
- 19) Vincendon, S. (2020.9.25). "C'est un traumatisme majeur" : Deux journalistes de Premières Lignes racontent l'attaque à paris. BFM TV. URL : https://www.bfmtv.com/police-justice/ca-s-est-passe-extremement-vite-un-journaliste-de-premieres-lignes-raconte-l-attaque_AV-202009250219.html
- 20) Untersinger, M. (2018.11.27). La justice française ordonne le blockage du site raciste Démocratique participative. Le Monde. URL : https://www.lemonde.fr/pixels/article/2018/11/27/la-justice-francaise-ordonne-le-blocage-du-site-raciste-democratie-participative_5389364_4408996.html
- 21) Untersinger, M. (2019.11.19). Julie Hainaut, harcelée sur Internet par des néonazis, attend toujours justice. Le Monde, URL : https://www.lemonde.fr/pixels/article/2019/11/19/cyberharcelement-victime-de-neonazis-il-y-a-deux-ans-julie-hainaut-attend-toujours-justice_6019680_4408996.html
- 22) #DéfendonsLaLiberté, (2020.9.23). Ensemble, défendons la Liberté, Libération, URL : https://www.liberation.fr/debats/2020/09/22/ensemble-defendons-la-liberte_1800215/